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7 **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법정스님 7주기 추모판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追 想 (48X48--Acrylic on Canvas)

• 국민스승이셨던 법정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의 관계를 확대해 다보면 불교와 카톨릭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되겠지요. 2009, 2010년 1년 차이로 지금은 두 분 모두 떠나셨지만 스승들의 가르침은 우리들 가슴속에 핏빛 등백처럼 살아남아 사 무친 추억으로 되살아옵니다.

고 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2017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음 마음으로	12	매향(埋香)의 의미와 지혜
스님 평안하소서!	16	죽음은 차원을 옮겨가는 여행 같은 것
	19	스님, 연꽃으로 피어나십시오
	22	'좋은 말씀'은 책에 다 있다.
꽃은 흙에서 핀다	26	내가 아는 법정스님
향기나는 우체통	30	길상사를 다녀와서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3	이별수업
古典을 읽다	36	세르반테스 장편소설 『돈키호테』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40	부탁, 긍정적으로 & 질문형으로!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6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글·법 정(法 頂)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 속에서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를 동정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얽매이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가까이 사귀면 이런 우려가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반자(同伴者)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 데도 항상 간섭을 받는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반자들 속에 끼면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아주 지극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자와 하인이 있는 것.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출가(出家)한 처지에  
아직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집에서 사는 재가자(在家者)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다  
남의 자녀에게 집념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있이 진 코빌라나무처럼  
재가자의 표적을 없애버리고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 용기 있는 이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코빌라나무는 흑단(黑檀)의 한 종류. 재가자의  
표적은 머리, 수염, 흰옷, 자아식품, 향료 및

금세공(金細工)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팔찌가 하나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서로 부딪쳐 소리가 난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 잘잘못이 생기고 번거로우니 혼자서 정진하라는 뜻.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니라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이 흐트러놓는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화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 갈증,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치 어깨가 떡 벌어진 얼룩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숲 속을 거닐 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임[集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의 해탈에 이를 겨를도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잠시 동안의 해탈은 세간적인 선정禪定이란 뜻. 그것을 얻었을 때만 잠깐 번뇌에서 놓여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태양의 후예는 부처님을 가리킴.

서로 다투는 철학적 견해를 초월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여  
도도를 얻은 사람은  
'나는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강론 -

### 관계의 과감한 가지치기

며칠 전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구절들을 읽으며, 혼자서 길을 떠난 나그네의 훌가분함을 거듭 체험할 수 있었다.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는 대부분 혼자일 경우가 많다. 저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느리듯이 삶의 무게와 빛깔을 지니고 묵묵히 허공을 난다. 잠을 자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창 밖에 눈을 주어 구름이나 별을 바라보는 사람,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 또는 책을 읽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이지만, 일상을 벗어난 나그네들 입은 마찬가지로.

사람은 혼자서 태어나 혼자서 죽어간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온갖 관계를 지니고 여러 형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속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뿐이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생각을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여기 소개한 '무소의 뿔'은 주로 출가 수행승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반인들도 귀를 기울일 만한 뜻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한편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소란 뿔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 코끼리 다음가는 큰 동물인데, 코 위에 뿔이 하나 솟아 있다. 그래서 '코뿔소'라고도 한다. 이 '무소의 뿔' 장후은, 주석서에는 독각獨覺을 위해 말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즉, 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타인과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수

행하는 모습을, 코뿔소가 하나의 뿔을 지닌 것에 비유한 말이다. 후렴처럼 되풀이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형식은 인도 고대의 서사시에도 흔히 나타나 있다. “혼자서 가라.”는 표현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와 같이 살라는 뜻이다.

이번에 길을 떠나올 때 읽으려고 구해놓은 몇 권의 책을 짐 속에 꾸러웠다. 그 중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Soul Mate》를 감명 깊게 읽었다. 오랜만에 밤이 이슬하도록 책을 대할 수 있는 아주 조출한 복을 누렸다.

리처드 바크는 우리 기억에 친숙한 작가이다. 그는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내다본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며, 또《환상幻像》의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일깨워주었다.

그는 기대를 갖고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를 가르쳐온 그 슬한 선각자들, 그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홀로 살았을까? 왜 그들 곁에는 모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정신적인 아내가 없었을까? 이 세상엔 왜 그런 놀라운 부부가 없을까?’

이른바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리석은 제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파묻혀 있다. 병을 고치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만이 그들 곁에 있을 뿐이다. 그들 곁에 멎었고 신비한 여인, 영혼의 동반자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깨달았다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들 선각자들은 인간적인 욕구를 넘어서기 때문에 영혼의 동반자 따위는 소용없었던

것일까?

그는 마침내 레슬리 패리시라는 아주 아름답고 슬기로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아름답고 신선한 시간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기쁨을 전해준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아름다운 레슬리에게서 자꾸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한다.

‘혼자다, 나 혼자뿐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서 살아가는가, 난 정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싫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다.

“한 인간에게 크나큰 희망을 투자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겁이난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다가도, 어느 순간 그녀가 전혀 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다. 결국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 자신 말고는 내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솔 메이트, 영혼의 짝이란 서로의 자물쇠와 열쇠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내 자물쇠에는 그의 열쇠가 맞고, 그의 자물쇠에는 내 열쇠가 맞아야 하는 그런 사이다. 솔 메이트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리처드 바크의 이 자서전적인 소설은 오늘처럼 삭막하게 바닥이 드러난 어둡고 살벌한 세상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의 일부는 《진리의 말씀法句經》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실려 있다.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 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나그네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투철한 자기 자신의 질서를 지니  
고 이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살아  
가려면 여럿 속에 섞여 복잡 미묘  
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숲 속의 은자隱者처럼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상 얽  
히고 설키면 인간의 신선한 뜰이  
시들고 만다. 한 그루의 나무를 기  
를 때도 불필요한 가지는 미련없  
이 가지치기를 해야 하듯이, 우리  
들의 삶에서도 서로에게 득이 되  
지 못하는 관계는 끊고 고쳐 새로  
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

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  
러나 한편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  
음을 산산이 흐트러놓는다.”

그러니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우환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  
럼 홀로 가라는 이 가르침은, 우  
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  
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  
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  
와 함께 있을 때는 부분적인 나밖  
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세상  
을 혼자서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무소의 뿔이  
라도 거둬거둬 외우면서 홀로 있음  
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영화 <7일간의 사랑>에서는 나  
나 무스크리의 음성으로 이런 노  
래가 은은히 들려온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간밤에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가을날처  
럼 맑게 됐다. 이것이 이 고장의 겨울 날씨

란다. 산타모니카 비치에 나가 태평양 너  
머로 해지는 광경을 보고 와야겠다. 영화  
에서 우리에게 눈물을 뿌리게 하던 바로  
그 이별의 바닷가…….

-

『숫타니파타』는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  
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입니  
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서 불타 석가  
모니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요  
긴한 자료가 되며, 초기 경전의 단순 소박

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불교 술어에 익숙  
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하  
게 해줍니다.

경전을 읽을 때의 상황과 심경을 경전  
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읽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  
일 것인가에 대해 배워보고자, 2017년 한  
해 동안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기획 연재합니다.

##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창립 이후 24년째(2016년까지 총 599명/총지급액: 약 8억 7천여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장학 사업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 영재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장학 기간은 1년이며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학생 추천서는 2월 9일(목)부터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학생 정보 및 장학 담당자의 확인 등을 기재한 추천서와 증명서류를 본모임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마감 : 2017년 3월 17일(금) 우표 소인까지)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매향(埋香)의 의미와 지혜

글·덕 일(德日)

반갑습니다.

지난 동지기도에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셨는데,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길상사 도량에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길상사의 대중스님을 포함해서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기도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열심히 정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새벽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이지는 않았지만 적당하게 내려서 오늘 초하룻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중스님들께서 새벽같이 공양을 드신 후, 춥고 손이 시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여나 신도님께서 절에 와서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빗자루로 법당 앞과 다니는 길을 말끔히 눈을 쓸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길을 걷다가 거리의 깨끗함을 보고 청소부 아저씨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나르는 분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듯, 이 사회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간에 그분들은 귀천없이 우리들의 형제이면서 가족인 것입니다. 내 가족같이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민들이 나라를 염려하면서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행자의 입장

에서 저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예로부터 호국불교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울 때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습이 되어 온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부처님께 간절하게 발원 올려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고통스런 현실에서의 탈출구로 민중의 염원이 담긴 “매향의례”를 하였습니다. “매향(埋香)이란 과연 무엇일까? 천년 전의 우리 조상들은 무슨 연유로 향을 갯벌에 묻고, 천년 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살랐던 것일까? 또 당시 그들이 느꼈을 현실감은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그것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을까?” 매향에 담긴 선조들의 깊은 마음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IMF 이후 깊은 산속의 기암괴석 아래에서는 무당굿이 한창이고,

도심속의 여관골목에서는 속칭 수많은 도시와 보살집이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힘없는 인간들은 이럴 때면 어김없이 갖가지 신령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고려말과 조선초기, 해안과 섬 지방 민중들도 마찬가지로 매향(埋香)을 통하여 자신들의 앞날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갯벌에 향을 묻고 다가올 미륵세계와 미륵불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애절한 기다림과 정성을 미륵부처님이 분명코 알아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매향이란 글자 그대로 향나무를 땅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향나무는 아무 곳에나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곳에 묻는 것일까요? 또 왜 묻는 것이며 향을 묻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매향을 할 때 향나무는 아무 곳이나 그냥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매향의 최적지는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매향이 이루어진 곳은 섬이나 해안지역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갯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매향한 지점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저 유명한 신안해저유물선입니다.

유물선이 발견된 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갯벌에 침몰하였기 때문에 선체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재는 갯벌 속에 묻혀 오래되면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안해저유물선에 화물로 실려있던 목재인 자단목은 일종의 향나무였습니다. 본래 목재로 수출된 것이었으나 이 자단목은 1천여년 가까이 갯벌에 묻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침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향의 결과 얻어진 침향목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매향비는 전남 신안군 압태도, 고성읍의 삼일포, 사천, 해미, 해남군 맹진리, 영암 엄길리, 영광 법성포, 장흥 덕암, 그리고 충남 당진과 경남 삼천포에서도 발견되어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의 발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존하는 매향비들은 거의가 고려말 조선초기의 것들이며, 지역적으로는 거의 모두 해안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 매향의 주체는 거의가 민중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통점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매향의 최적지는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매향처가 해안지방에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해안지방이라는 입지조건이 구세기복적인 매향의례를 추진케 한 배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구의

창궐”이라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여말선초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기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배층의 불안요인이었다면, 적어도 왜구에 의해 격심한 침탈을 받던 해안지방 민중들의 처지에서는 왜구의 창궐이 더 큰 불안이요, 현실적 위기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향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매향은 미륵신앙 중에서도 하생신앙(下生信仰)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갯벌에 묻은 향을 매개로 하여 하잘 것 없는 민중들이 하생한 미륵보살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그가 주관하는 용화회(龍華會)에 들 수 있다는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정연한 것입니다. 맨손이 아닌 침향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였다가 하생한 미륵불을 맞이한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원은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묻은 향나무가 수백 년이 지나면 침향이 되고, 침향이 된 뒤에는 서해바다에서 용이 솟아오르듯이 스스로 물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중들의 염원이 때가 되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는 민중의식 속에 자리잡은 미륵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신년에도 부처님께 기도발원 올리실 때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대한 성취보다는 천년을 두고 후세까지 이르도록, 이 땅이 불국토가 될 때까지 대발원을 세우시면서 청정한 마음속 깊은 염원을 담아 ‘매향의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60년 음력 12월 초하루 법문

(2016년 12월 29일)



## 죽음은 차원을 옮겨가는 여행 같은 것

글·현 장(玄藏)

암세포와 싸우는 동안, 64킬로그램이던 법정 스님의 몸무게는 45킬로그램까지 내려앉았다. 병상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육신이 거주장스럽다. 빨리 번거로운 거 벗고 다비에 오르고 싶다.”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극히 싫어했던 스님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무척 거부해 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산골 맑은 공기 속에서 사는 스님이 왜 폐암으로 투병했는지 궁금해한다. 사실은 스님 나이 네 살 때 세속의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집안 내력이 있다.

법정 스님이 떠나기 이틀 전, 나

는 속가의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스님을 만났다. 부처의 세상에서 속가의 인연이란 사소한 점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피붙이의 정을 어떻게 지울 수 있으랴. 스님과 어머니는 고종사촌 간이다.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다.

“이제 볼 수 없는 거냐?”

법정 스님이 대답했다.

“왜 못 봐? 불일암에 오면 보지.”

“다리 아파서 불일암엔 못 올라가.”

“그럼 길상사로 와.”

두 분의 대화를 엿들으며 편안함을 느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간과의 작별이고 차원을 옮겨가는 여행 같은 것. 스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건너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니다. 축하해드리는 것이 옳다.’

부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소유해야 한다. 버려야 할 두 가지는 탐욕과 무지이며, 소유해야 할 두 가지는 무아와 무소유다. ‘나 없음’을 체험한 수행자는 청정과 청빈의 맑은 삶을 꽃 피우고, ‘내 것 없음’을 깨달은 불제자는 나눔과 관용의 향기로운 삶의 향기를 전하게 된다.

법정 스님의 생전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는 곳이 번거로워지면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았다. 사후 장례 절차까지도 간단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평소에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스님 책을 가져와서 좋은 말씀 써 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펜을

잡고 ‘좋은 말씀’ 네 글자를 써준다. 책을 받아본 이는 “진짜로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유쾌하게 웃는다. 제주도 농장에 갔을 때는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은 농장 주인이 차를 대접하면서 한마디 했다.

“스님, 제주도 메뚜기 말도 못합니다.”

“어이, 육지 메뚜기도 말 못해.”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회진을 온 의사 선생님이 “스님, 불편하신 곳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어이, 내가 불편하니까 병원에 왔지”라고 대답했다.

법정 스님이 서울 봉은사 아래 현 생활을 정리하실 때 나는 스님을 찾아뵙고 출가 상담을 했다. 나도 송광사로 내려가니 송광사로 출가하라는 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자정암 터를 닦아 불일암을 짓기 시작하였다. 1975년

에 불일암이 생기기 전에 자정암이 있었다. 자정암 건물을 해체하여 쓸 만한 자재를 골라 지은 집이 불일암 아래 부엌채다.

그리고 불일암 지을 목재와 기와는 전부 인부들 손을 빌어 인력으로 운반했다. 나는 송광사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인부들 먹을 음식, 밥, 국, 반찬을 두 손에 들고 매일 불일암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가을 효봉 노스님 기일에 맞춰 불일암 낙성식이 열리고 나는 사미계를 받았다.

스님은 불일암 부엌에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는 글을 붙여놓고 세 가지 이상 반찬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아침에는 미숫가루나 빵으로 때웠다.

스님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티베트 사람처럼 살다가 인도 사람처럼 우리 곁을 떠났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스님이 내게 써주신 글을

다시 새겨본다.

울거니 그르거니 내 몰라라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라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 출처 : 법정 스님의 편지와 서시,  
짧은 글을 담아 엮은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중에서

## 스님, 연꽃으로 피어나십시오

글 \* 이해인(수녀)

언제 한번 스님을 꼭 봐야겠다고 버르는 사이 저도 많이 아프게 되었고 스님도 많이 편찮으시다더니 기어이 이렇게 먼저 먼 길을 떠나셨네요.

2월 중순, 스님의 조카스님으로부터 스님께서 많이 아위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 슬픔은 한층 더 깊고 무거워졌더랬습니다. 평소에 스님을 직접 뵈진 못해도 스님의 청정한 글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스님의 글로 위로 받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다 스님의 책이 꽂혀 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들은 스님의 글씨를

표구하여 걸어놓곤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스님의 그 모습을 뵈 수 없음을, 새로운 글을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야단맞고 싶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오라고 하시던 스님. 스님의 표현대로 ‘현품대조한 지 꽤나 오래 되었다고 하시던 스님. 때로는 다정한 삼촌처럼, 때로는 엄격한 오라버님처럼 늘 제 곁에 가까이 계셨던 스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수행자라지만 이별의 인간적인 슬픔은 감당이 잘 안 되네요. 어떤 말로도 마음의 빗장을 표현하기 힘드네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 편지도 안 하고 뵈 수 있는 기

회도 일부러 피하면서 살았던 저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 정재봉님과 그의 TV 대담에서 스님은 어느 산길에서 만난 한 수녀님이 잠시 마음을 흔들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신 일이 있었지요. 전 그 시절 스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수녀님 아니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불자들이 있었고 암튼 저로서는 억울한 오해를 더러 받았답니다.

1977년 여름 스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구름모음 그림책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래전 스님과 함께 광안리 바닷가에서 조가비를 줍던 기억도, 단감 20개를 사 들고 저의 언니 수녀님이 계신 가르멜수녀원을 방문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어린왕자의 촌수로 따지면 우리는 친구입니다. '민들레의 영토'를 읽으신 스님의 편지를 받은 그 이후 우리는 나이 차를 뛰어넘어 그

저 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담백하고도 아름답고 정겨운 도반이었습니다. 주로 자연과 음악과 좋은 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는 벗이었습니다.

‘...구름 수녀님 올해는 스님들이 많이 떠나는데 언젠가 내 차례도 올 것입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겹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헛되이 살지 않으면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한밤중에 일어나(기침이 아니면 누가 이런 시각에 나를 깨워주겠어요) 벽에 기대어 얼음 풀린 개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 자리가 곧 정토요 별천지임을 그때마다 고맙게 누립니다...’

2003년에 제게 주신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어쩌다 산으로 새 우표를 보내 드리면 마음이 푸른 하늘처럼 부풀어 오른다며 즐거워하

셨지요. 바다가 그림다고 하셨지요. 수녀의 조출한 정성을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중간 역할을 잘못한 일로 제게 편지로 크게 역정을 내시어 저도 항의편지를 보냈더니 미안하다 하시며 그런 일을 통해 우리의 우정이 더 튼튼해지길 바란다고, 가까이 있으면 가볍게 안아주며 상처 받은 맘을 토닥이고 싶다고, 언제 같이 달맞이꽃 피는 모습을 보게 불일암에서 꼭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젠 어디로 갈까요, 스님. 스님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자비의 하얀 연꽃으로 피어나십시오. 부처님의 미소를 닮은 둥근달로 떠오르십시오.

- 출처 : 동아일보 2010년 3월

## 법정 스님 7주기 추모법회

• 2월 22일(음.1월 26일) / 오전 11시

##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산에는 꽃이 피네’

• 법정 스님의 글과 시인의 시 그리고 클래식 연주로 진행됩니다.  
• 2월 26일(일) /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좋은 말씀’은 책에 다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니고 찾아 헤맬 때에만 만남은 이루어진다.

나 하나를 어찌지 못해 몇 밤이고 뜬눈으로 밝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가 아니다.

그는 단수의 고독에서 벗어나 복수의 환희에 설레면서 맑게맑게 그리고 깊게깊게 승화한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봄에 우리는 무엇인가 만나야겠다.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

- 영혼의 모음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 버리고 떠나기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 홀로 사는 즐거움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 오두막 편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 홀로 사는 즐거움

행복은 결코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 홀로 사는 즐거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

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 버리고 떠나기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람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 오두막 편지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 산방한담

수행자는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바쳐야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

일상적인 타성과 게으름을 녹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을 통해 녹은 제거된다.

- 오두막 편지

태어난 사람인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마련이다.

이 죽음은 권력도 금력도 남녀노소도 신분의 높낮음도 가리지 않는다. 생을 끝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위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꽃과 잎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듯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릴 바에는 미련없이 훤히 벗어버려야지 비굴하게 애걸복걸 매달려서는 안 된다.

매달려 보았자 하루 이틀이지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 산방한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 산에는 꽃이 피네

흔히들 마음을 맑히라고, 비우고 말으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맑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는 없다.

또 실제 생활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이처럼 여겨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 마음이란 결코 말로써, 관념으로써 맑혀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선행(善行)을 했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선행이란 다름 아닌 나누는 행위를 이른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 있던 것들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일뿐이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 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 맑고 향기롭게 발족 취지문 중에서

## 내가 아는 법정스님

글 • 김기철(도예가)

우리 식구는 거의 일 년에 두 번 썩은 방학 때면 스님이 계신 불일암을 찾아가 이삼일씩 묵고 왔다. 뽀뽀스러운 것은 시주 한번 제대로 한 일 없이 쳐들어가지도 않은 양식을 죄다 파먹고 왔으니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어디 그뿐인가, 부부간에 씹박질한 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 집사람이나 나는 서로 제 좋은 식으로 일러바친다. 또 애들 골치 아픈 얘기를 늘어놓으며 자문을 구한다. 상담비 한 푼 안 내고 말이다.

적어도 내가 아는 스님은 이러하시다. 서릿발처럼 냉철한 엄격성, 특히 당신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기 질서는 칼날보다 더 날

카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분의 흐트러진 모습은 눈꼬리에 눈곱 같은 것이 살짝 끼었다든지, 미처 못 자른 콧구멍털이 세상 구경하겠다고 얼굴을 내밀고 있다든지, 그밖에 허점을 아무리 파고들어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제고 상큼하게 다려 입은 정갈함이 어느 মানুষ도 저렇게 시중은 못할거라고, 만약 장가를 들어 살림을 한다면 누구도 며칠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질을 치지 않을까 하고, 하긴 스님의 그 뛰어난 안목에 맞게 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스님은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탁월하시다. 한 예를 들면 불일암 다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와 무슨 생각에서인지 스님 거처하시는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다. 벽 앞 통나무 탁자 위에 내가 만든 백자 연잎 다완을 놓고 Tea light 초에 불을 땀기셨다. 그러고는 전등을 껐다. 벽을 배경으로 한 탁자 위의 다완이 금세 조명기구로 변신한 것이었다. 맑고 은은한 불빛이 벽면을 쓰다듬듯 훑고 올라갔다. 스님은 뒤이어 명상 음악을 켜셨다. 불꽃은 고요히 일렁이고 다완 전을 따라 깊고 유장한 산의 능선이라 해도 좋을 그림자가 울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찌면 울리는 선율과 그림자의 춤사위가 그렇게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꿈속 같았다. 불꽃은 살아서 춤을 추고 음악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무아의 경지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이다.



불일암에 계실 때 그 거처하는 방을 보나 마당을 보나 심지어 연장광을 들여다봐도 모든 것은 있을 자리에 있고 질서정연했다. 그러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푸근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불일암 전체를 싸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우소를 가보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대체 오물의 정체는 어디로 가고 정갈하다 못해 신선한 향기만이 고여 있는지…….

불일암의 뒷간은 역사에 남을 만하다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오물이 떨어지는 통에는 가랑잎이나 재가 보송보송하게 깨끗이 깔려 있고, 앞 나무창살을 통해서 바라다 보이는 대숲의 신선함은 인적미답의 태고의 자연 그

자체다. 땅에는 이끼가 살아 숨쉬고 대줄기와 잎의 생명력 넘치는 싱그러움은 가슴을 시원케 하는 바람을 일으킨다. 속이 그득하거나 부글거리는 사람이 이 안에 앉고 보면 어느새 내장은 물론 정신까지 시원해질 것이 분명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재래 뒷간이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찬양하고 싶은 것은 자연의 순환이 지극히 생산적으로 이루어져 건강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우리 밥상에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스님과의 인연은 도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도자기를 말하면 응당 다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땅이나 파고 호미질이나 하는 거친 일에 익숙했지 다도라는 맑고 향기로운 차 문화에는 맹문이였다. 그것은 도자기에서 가장 까다롭고 품격 높은 다기를 빚는 데 최악의 조건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늘 접촉하고 즐기는 차 시간이야말로 좋은 다기를 빚는데 우선 조건이려만 나는 불행히도 그런 생활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스님은 차 스승이 되어주셨다. 스님은 늘 차를 즐기시고 그릇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나에게는 과분한 스승이셨다. 찻잔 하나만 보더라도 그 미적 감각과 쓰임새에 알맞은 것을 빚는 데는 굵에서부터 전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구에 경 읽기 식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법정 찻잔'이 어엿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인내력을 시험할 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찻잔의 이름은 '법정 찻잔'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무척 좋아하신다. 또 어떤 때는 어린이에 같으시어 짓궂게 사람을

골리시는 데도 상당한 소질이 있으시다. 기분이 나시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경으로 이를 즐기는데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한마디로 스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심심찮게 느끼게 하면서도 도를 닦는 수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가를 몸소 보이셨다. 참으로 엄격한 자기 질서는 당신 생활의 순간 순간을 접할 때마다 문득문득 남모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한 예로, 불일암에서 며칠씩 있는 동안에도 정확히 새벽 세 시면 불이 켜지고 새벽 예불이 시작되

었다. 하루의 생활은 철두철미한 당신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수십 년을 두고 스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적어도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말이다. 그 매섭고 단호한 성품은 비정하리만큼 완벽할 뿐만 아니라 트러한 꼴은 용납 못하시니 세상과의 타협이 그분 성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칫 관용의 미덕이 없는 냉혹한 분으로만 비치기 쉽겠지만 승가의 계율을 지키고 청정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녹색나눔장터 수익금을 활용하여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 따비에와 함께 장기간의 출판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책임 부족한 미안마(버마)에 어린이, 청소년이 읽을 만한 법정 스님의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 1,2,3권 중에서 5개의 이야기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버마어로 번역, 출간하여 450개 어린이 교육기관(국립 도서관, 마을 도서관, 에이즈 센터, 한센병 센터, 학교 등)에 무료 보급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 6일 미안마 양곤에서 개최된 어린이 문학 행사에서 '슬기로운 동화나라'를 전시하였으며, 잔여분은 분쟁 지역 및 태국-버마 국경지대에 있는 난민촌 어린이 교육기관에 배포하며, <어린왕자>는 현재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어 2017년 2월부터 버마 현지 어린이 도서관 및 어린이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길상사를 다녀와서

글 • 윤현영

지난 늦가을 낮에 길상사를 잠시 들렀는데요, 평일에도 점심 공양을 제공하더군요.

메뉴는 소박한 '비빔밥'이었는데 여기에 정갈한 떡, 전, 과일이 함께 올려져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처럼 식후 그냥 빈 그릇만 반납하면 되더군요. 주말에 등산가서 사찰을 만나면 가끔 점심 공양을 먹어볼 수 있었는데, 길상사 점심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음식도 좋았지만 솔직히 설거지를 안하고 식기를 반납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겁니다.

혹시 길상사가 보실 요량이라면 평일 점심시간 무렵을 추천합니다. 내방객도 적어 한산하고 특히 근사한 점심공양을 맛볼 수 있

으니까요.

공양이 맛있었다면 불전함이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면 주변에 보이겠지요?

법정 스님의 진영과 유품이 모여진 진영각 바닥은 은은한 온기로 데워져 있어서 발바닥으로 그 따듯한 느낌이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 계실 때 손수 만들어 사용하셨던 투박한 의자 일명 '빠빠용 의자'를 재현한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사진을 보고 비록 서툰 솜씨지만 이렇게 순천 불일암에 놓여 있었던 통나무 의자를 직접 그려본 적도 있었기에 특히 반가웠습니다.



의자 옆 뒷마루에 놓여있는 빈 노트엔 다양한 사연이 페이지마다 손글씨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지도 돌봐야 하고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요즘은 저의 몸도 고달파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마 60대 초로의 남자 같았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쁘다는 글귀... 아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언저리겠죠?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왔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자비를...

길상사를 찾으면 누구나 인상

깊게 바라보는 '관세음보살'. 종교적 메시지를 떠나서 절제된 선과 선이 어우러진 조형미 또한 보이는 시선을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상의 옆모습이 유난히 가냘프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자야 김영한(길상화)의 아낌없는 나눔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50대 중반인 저의 개인사도 마찬가지로 팍팍합니다. 더구나 울겨울엔 조류 독감으로 방방곡곡의 오리, 닭들이 매일 수십만 마리씩 생매장되었습니다. 문득 식료품 매장에 진열된 달걀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란판은 달걀을 보호하는 용기(容器)가 아니라 그들의 관(棺)이다!”





저는 관 뚜껑 안쪽에 길상사의 관세음보살상을 옮겨봤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동안 깨어나지 못한 무수한 알, 생매장당한 수많은 닭, 제가 먹었던 온갖 육축(六畜)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에게도 불심이 전해지길 간절히 빌며, 아울러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저 자신에게도 자비(慈悲)를...

사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어설뿐 그림을 통해서, 두툼한 재생 펄프로 만들어진 달걀들의 관 속에 0.5mm 샤프연필로 사각사각 끄적거렸던 그 찰나(刹那)만큼은 아마

불교신자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깎이에 불교한 저는 그림 솜씨가 서투르다 보니, 저의 글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더 다양한 작품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길상사 한 칸에서 다같이 전시회를 열어본다면 어떨까요?

한 때는 초록의 나무였고, 한 때는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고급 종이였겠죠. 지금은 계란판이 되어 윤회(輪廻)의 굴레를 돌고 있지만 다양한 예술가들의 보시(布施)를 입을 수 있기를...

## 이별수업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계를 사바세계라 하며 사바세계란 헤아릴 수 없는 아픈 일들의 계속이라 하여,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타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은 우둔한 인간은 번뇌를 짊어지고 수많은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나약한 인간으로서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몰되는 것보다 종교에 의지하며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종교는 늘 나약한 인간들의 틈바구니를 헤집고

파고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가까이하는 부처님 또한 이처럼 사바세계에서 번뇌에 싸여 고통을 안고 사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가르침을 설교하셨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50이 가깝도록 나름대로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 세상 풍파를 겪었다고 자부했던 나이지만 아버지를 잃고 내게 다가온 고통은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난생처음 느낀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맘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길고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다. 그들

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해 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이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였고, 목구멍으로는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탈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억지로 밀어 넣은 음식물들은 곧바로 물로 배설되고 말았다. 며칠을 보내고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즉시 털고 일어나 병원 문턱에 들어섰다. 며칠간의 입원으로 말미암아 탈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차디찬 단칸방이긴 하나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사바세계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중에서 죽음을 통해 느끼는 산 자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 큰 고통이라고 말 할 수 있으리라. 죽은 이의 고통은 아직

나는 알 수 없으나 살아남은 자 중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것들은 심히 기습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광대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죽음을 통해 현세의 우리가 깨우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다. 어쩌면 나의 이런 고통은 나의 업의 크기에 비례한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의 가장 큰 스승이요,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머지않아 우리는 또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많은 것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더 없는 권력을 누리며 더없이 좋은 명약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공명정대하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

또한 그들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살지만, 마찬가지로 나와 세상인연을 맺은 그들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이렇게 끝없이 돌고 도는 세상은 윤회를 거듭하며 오늘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시각과 사랑하는 이를 보낸 후 닥쳐오는 고통을 무엇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피하는 것보다 이것마저도 사랑하는 이가 주고 간 사랑의 증표라 여기며 실컷 느끼고 실컷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 사랑하는 이는 감당해 낼 만큼의 고통

만을 선사해 줄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나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정신으로 일일일생一日一生할 것이다. 이 이상 소중한 가르침이 어디 있으랴.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로부터의 배움은 나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그것이 영원히 살아남을 아버지의 모습일 테나... 오늘도 부처님 곁에서 세속의 아버지 그림자를 더듬어 본다. 그리고 늘 곁에 앉아 미소 짓는 나의 아버지께 다가간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은 월간 「맑고향기롭게」를 발간하여 회원과 길상사 신도를 비롯하여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동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모임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를 주는 알차고 유익한 글이 담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사무국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02.741-4696)

## 세르반테스 장편소설 『돈키호테』

글 • 윤부혁(작가)

『돈키호테』는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의 풍자소설로 정식 표제는 <재기(才氣) 발랄한 향사(鄕士) 돈키호테 데 라만차>이다. 전, 후편 합쳐 6,700여 매(200자 원고지 기준) 요즘 책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 소설의 전편은 1605년, 후편은 1615년에 출판되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을 쓴 목적을 “당시의 향간에 흥미했던 기사도 이야기의 권위와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라고 했듯이 그 당시 스페인에 크게 유행했던 기사도 이야기의 패러디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감흥이 솟는 대로 일정한 계획도 없이 써 나가는 동안, 처음 의도한 바를 잊고 주인공 돈키호테

와 종자(從者)인 산초 판사의 성격을 창조한다는 새로운 주제에 열중하여 본의 아니게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대작이 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소설이 아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A.티보데는 ‘인류의 책’이라 불렀지만, 진정으로 ‘인간’을 그린 최초, 최고의 소설이라는 격찬을 받기도 하였다.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문인과 지성들은 돈키호테를 현실의 거울이라 칭하며, 세르반테스의 철학이야말로 인간 삶과 권리와 정의를 위한 이상적인 개혁이라고 보았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며,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겪는 모험은 웃음을 자아

내기도 하고 눈물을 쏟아 낼 수밖에 없는 사연을 담고 있기도 하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살고있는 50살에 가까운 독신의 시골 선비 아론소 기하노는, 수렵도 발농사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기사도(騎士道) 이야기에 빠져 그것에 관한 책을 사기 위해 발을 팔아버릴 정도의 광인(狂人)이다. 그는 스스로 정의의 기사가 되어 세상의 악을 바로잡겠노라고 결심하고 모험의 길을 떠난다.

조상들이 쓰던 낡은 갑옷을 입고, 말라빠진 말에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자기 자신도 어엿하게 ‘돈키호테’라 이름 붙여 편력 기사로서의 모험을 세 차례나 떠나게 된다. 처음에는 혼자 떠나 하루 걸리는 곳까지 가서 하룻밤을 자고 봉변을 당한 채 돌아온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보름 후 농부 산초와 함께, 비쩍 마른 말 로시난테를



마드리드 에스파냐 광장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동상

타고 본격적인 여행길에 오른다. 풍차와 격투를 벌이거나 양떼 가운데로 돌진하는 등, 여러 가지 모험과 사건을 일으키는 돈키호테는 자신을 정식 기사로 착각하는 탓에 많은 술한 기행을 일삼는다. 그 결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강제로 끌려가는 노예선(奴隸船)의 노예들을 풀어 주기도 한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그를 염려해 주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집으로 끌려오게 된다. 건강을 회복한 돈키호테는 세 번째 모험을 떠난다. 두 번의 모험 이후 미치광이 돈키호테에 대한 소설이 시중에 유행하고, 그것을 읽은 인근의 공작 부부가 그를 성으로 초대해서 그를 대단한 기사로 대접하며 그의 광기를 지켜보는 것을 즐긴다. 공작은 산초에게는 섬을 통치하도록 허락하는 연극을 꾸며 그를 지켜보며 웃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성을 떠나 그가 못있어 하는 여인 '돌시네아'를 찾아나서며 모험을 계속하지만, 산초는 돌시네아가 주인의 광기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임을 알아차린다. 보다 못한 그의 친구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은월의 기사로 변장하여 돈키호테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굴복시켜 앞으로 1년 동안 무기를 쥐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는다. 돈키호테는 은월의 기사와 대결해서 졌으므로 약속에 따라 고향 집으

로 돌아온다. 꿈은 깨어지고 서글프기만 한 돈키호테는 모두가 알맞은 제자리에서 질서 정연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만이 꿈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인생을 뉘우치며 조용히 숨을 거둔다.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문인과 지성들은 돈키호테를 현실의 거울이라 칭하며, 세르반테스의 철학이야말로 인간 삶과 권리와 정의를 위한 이상적인 개혁이라고 보았다.

돈키호테는 근처에 사는 농부 산초 판사를 종자로서 거느린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매한 이상주의자인 주인 돈키호테는 순박한 농사꾼으로 우직하고 욕심꾸러기이며 애교가 있고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와는 지극히 대조적인 짝을 이룬다. 그의 기사도 정신의 광기와 몽상은 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실 세계와 충돌한다. 우스꽝스러우나 주인공들에게는 비통한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한다. 이러한 가혹한 패

배를 겪어도 그의 용기와 고귀한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

돈키호테는 세계 제패를 꿈꾸던 스페인의 무적함대 패배 이래 몰락해 가는 조국의 모습을 감옥에서 보내던 세르반테스가 그 시대를 조명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이 이 작품의 맺음말에서 『돈키호테』는 당시 권세를 누리던 기사도 이야기를 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돈키호테는 고매하고 이상적인 인물로 산초 판사와 함께 가장 특이한 성격의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기사도의 사명감에 우스운 모험으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돈키호테지만, 그의 고매한 품성은 끝까지 유지된다. 한편, 대비되는 인물로 산초는 실제적이고 비속한 물질주의적인 성격으로, 이 둘은 서로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의 성격 묘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을 다

루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돈키호테는 점차 기사소설의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한편 산초 판사는 주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의 이상주의를 닮아가며 급기야는 임종을 앞둔 돈키호테에게 죽지 말고 네 번째 출정에 나설 것을 간청하기까지 한다. 돈키호테의 이상과 산초 판사의 현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도 희미해진다.

돈키호테가 미쳐서 살다가 제정신을 찾고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은 우리에게 심오한 삶의 교훈을 준다. 이성의 논리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아니면 진정 우리가 꿈꾸는 것을,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도 할지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구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 부탁, 긍정적으로 & 질문형으로!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하고 있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떠오르는 말들을 2가지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아, 떠들지마!'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부정의 명령입니다. 반면에 '조용히 해!' 는 긍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화는 명령보다 부탁을, 부정적 표현보다 긍정적 표현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표현이 상대를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감대화의 부탁은 질문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형 부

탁을 받으면 그 답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생각이 깊어지며 즉흥적인 답을 하게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위의 명령을 질문형으로 하면, '떠들지 말아주겠니?' 혹은 '조용히 해주겠니?'가 됩니다.

이 2개의 질문형 부탁 중에 긍정의 질문형 부탁, '조용히 해주겠니?'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 긍정의 질문형 부탁에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붙여서 말하면,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해주겠니?'입니다.

선생님의 느낌을 더하여 말하면 더욱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계속 말을 해서 난감하네, 수업시

작하게 조용히 해주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대화입니다. (나의 상.느.바.부.)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붙여서 긍정의 질문형 부탁을 적어보세요.

---

위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웬 집담을 그렇게 해대니?'  
'수업중 친 것도 모르는거야?'  
'선생님이 들어온 것 안보여?'  
'선생님을 무시하는거니?'  
'도대체 왜 이리 떠드니?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너희 몇 학년인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니?'

상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때로 말은 상황을 결정하고, 그 말로 인하여 상황의 변화 방향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자

신들이 하는 말이 '집담'으로 평가됨으로써 스스로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책임을 지며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은 수준이 높아질 수 없을지도…….

평가는 상대의 자력(自力)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력은 스스로 생각하고, 겪어내며 생기는 단단한 힘입니다. 단단한 벽돌 한 장과 같은 자력이 생기고, 또 생겨서 튼튼한 기둥이 되고, 단단한 벽이 됩니다. 자신과 상대의 느낌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자력은 쌓이게 됩니다. 비난을 받으면 위축되어 자력이 생기지 않으며, 비판을 경험하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창립 이후 24년째(2016년까지 총 599명/총지급액: 약 8억 7천여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 장학 대상 : 일반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서는 2월 9일(목)부터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 ② 학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 접수 마감 : 2017년 3월 17일(금) 우표 소인까지
- ▶ 선정 발표 : 2017년 4월 5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장학금 동참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맑고 향기롭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평가와 비난과 비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말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침을 삼키듯, 그 말을 삼키며 공감대화를 생각하고 말해보십시오. 공감대화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상느바부의 법칙에 따라 적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방법은 무척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적은 것을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대화의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기대 이상으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놀랄만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업종이 치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는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던 이야기 다 끝내고 수업하면 좋겠니?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작하고 싶은데,

몇 분 시간 주면 이야기가 다 끝날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헤헤, 죄송해요, 선생님…….' 하고 웃으며 수업 받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혹시, '30분이요~' 라고 장난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공감대화로 말하면 됩니다.

'와, 30분이 필요할 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거야?'

날이 참니다. 맑고, 짙하게 추운 한국의 겨울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추위에 찢찢매며 어서 봄이 오기를 고대하는 분도 계시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웃으면서…….



## 많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 많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 반찬 나눔은 매주 밑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5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많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많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많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 주신 용품은 '많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 많고 향기롭게 생태 자원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모집

많고 향기롭게 회원님 중에서 자연활동, 환경운동, 생태적인 삶과 실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봉사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판매, 홍보 활동과 생태현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법정스님 7주기 추모법회 : 22일(수) 오전 11시/설법전
-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향기로운 음악회 : 26일(일) 오후 2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2,3,9,10,16,17,23,24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6,13,20,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

(28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8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7,14,21,28일)/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4회차 기도가 12월 6일(일)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 2월 2일(목) 오전 9시 50분 ~ 2월 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2월 4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동안거 90일 관음기도 회향

- 회향 : 2월 1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2월 11일(토) 오후 8시 00분 ~ 2월 12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 2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2월 1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2월 20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법정스님 7주기 추모법회

- 일시 :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2월 2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시길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천수회(템플), 청년회, 합창단, 새신도봉사회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문의 : 길상사 중무실 02.3672-5945)

##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및 삼재 소멸기도	2월 2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2월 4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동안거 해제	2월 11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11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11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14일(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20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법정스님 7주기 추모법회	2월 22일(수)	오전 11시	설법전
초하루법회	2월 26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 불기 2561년(2017) 길상사 불교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2017년 불교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바른 신행과 교육을 통하여 반야를 향해 정진하는  
불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 불교대학 8기

- 개강 : 3월 9일 (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야간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교육과정 : 1년(2학기제)
- 교육비 : 40만원(학기별 분납 가능)

### 경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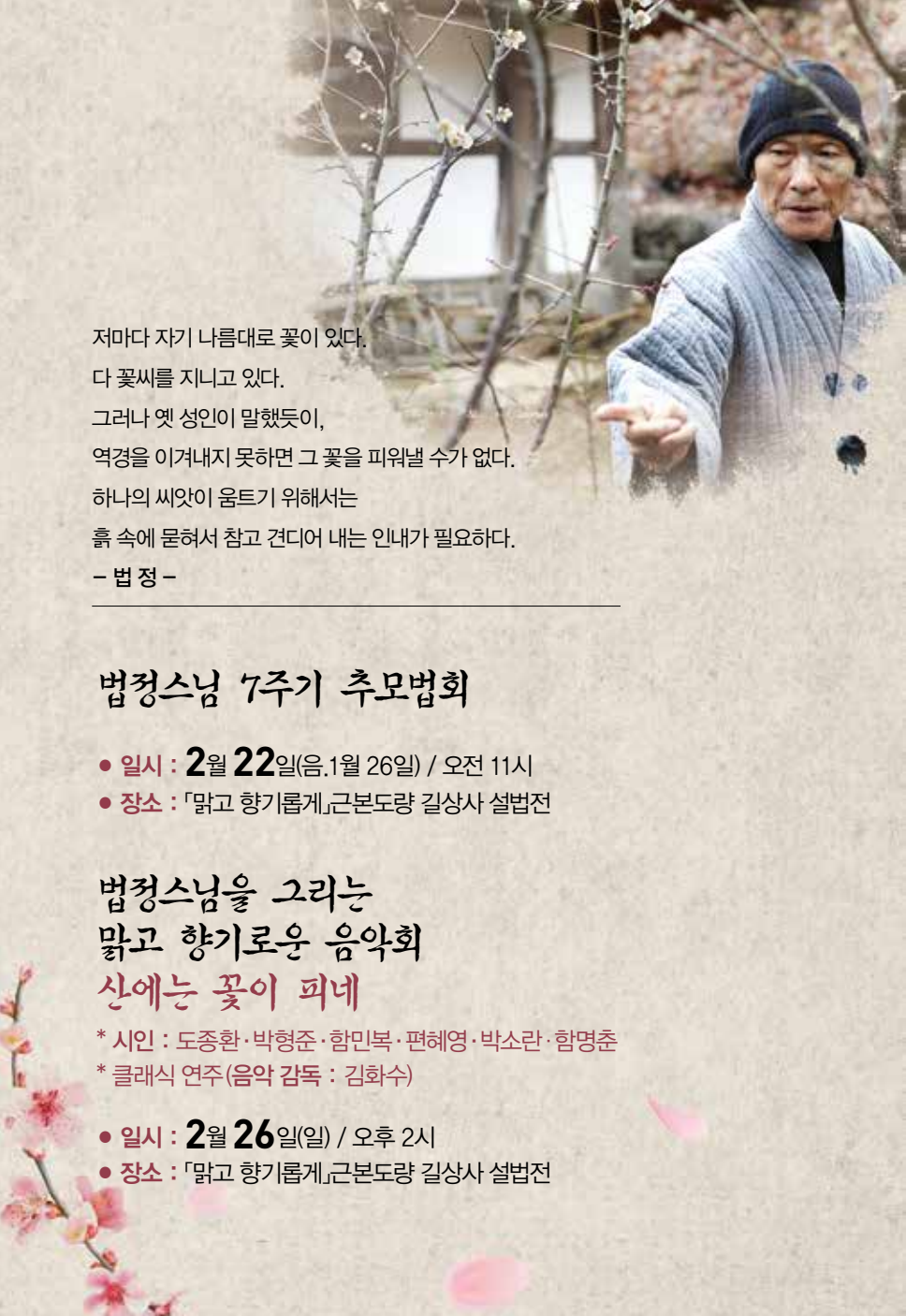
- 개강 : 3월 14일 (화)
- 시간 : 매주 화요일 2시 ~ 4시
- 경전 : 보조국사수심결
- 교육기간 : 14주
- 수강료 : 7만원 (교재 별도)

### 불교입문 34기

- 개강 : 3월 8일 (수)
- 시간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야간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대상 : 초발심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교육기간 : 12주
- 수강료 : 7만원(교재 포함)
- 특전 : 수료 후 5계 수지, 범명 수계

\* 접수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 (길상사 불교대학)

\* 문의 : 길상사 중무실 02-3672-5945 (입금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꽃이 있다.  
다 꽃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옛 성인이 말했듯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어 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 법정 -

---

## 법정스님 7주기 추모법회

- **일시** : 2월 22일(음.1월 26일) / 오전 11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산에는 꽃이 피네

- \* 시인 : 도종환·박형준·함민복·편혜영·박소란·함명준
- \* 클래식 연주(음악 감독 : 김화수)

- **일시** : 2월 26일(일) / 오후 2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